주님 수난 성지주일

서울주보

2009년 4월5일(나해)
- 제1677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사목센터 3층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오토 랑즈(Otto Lange, 1879-1944),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1919년, 채색 목판화, 52.4×46.2cm, 로스엔젤레스 예술 박물관, 미국

성화 해설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매질을 가하거나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고 있다. 눈을 치켜 뜬 주변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눈을 감으신 채 온갖 모욕과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있다. 작가는 거친 인물 묘사와 날카로운 선, 흑백의 대조와 붉은 색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입당송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참조

제1독서 이사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ㄱ.19-20.23-24(⊙2ㄱ)

⊙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대나이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주님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나는 주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필리 2,6-11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

수난복음 마르 14,1-15,47 〈또는 15,1-39〉

영성체송 마태 26,42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서울대교구는 4월5일 김수환 추기경님 공식 추모 기간을 끝내면서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함께 "감사와 사랑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부활 기간 동안은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 등은 자칫 쉽게 지나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랑의 정을 표현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실 한 번도 사랑의 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혹은 직접 사랑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또한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쉬운 일 같지만 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사만 잘 해도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흔히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거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다른 생각과 사고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는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때로는 적대적이 됩니다.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크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환영했을까요? 유다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고대하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전능하신 힘을 지닌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세주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한 번 드높일 것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 오늘날의 슈퍼스타가 부럽지 않을 인기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분히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주장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던 유다인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그때 그 군중처럼 예수님께 오직 현세적인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마르 14,8).

말씀의 이삭

슈퍼스타

강인봉 베네딕토 | 가수

누구에게나 '빵'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이유, 보람 등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겠지요. 특히 가수나 연기자 같은 소위 연예인의 경우 대중들의 박수와 환호는 그들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중한 그 '무엇' 입니다. 제가 만들고 부르는 노래에, 이야기 하나하나에 울고 웃어주며 부모나 형제자매 이상으로 저를 걱정해 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팬들에게 더없는 애틋함과 책임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몸이 아파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치 홀린 듯 무대 위에서 노래한 적이 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의 박수와 환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순간은 바로 내리막을 예고한다는 것을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따라준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노래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한편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만큼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권력이건 금력이건 또는 인기이건 한번 그 맛을 보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한번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 무리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했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추하게 변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도 결국 이런 욕심 때문이겠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소위 '월드스타'의 모습입니다.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추종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막대풍선 대신 팔마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한번 뵙기 위해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나뭇가지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봐도 손색없을 '스타' 예수님의 인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후 예수님의 인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분을 환영하던 바로 그 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꿋꿋하십니다. 인기에 연연하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든지 대중들의 인기를 회복할 방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향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린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튀려고, 큰 소리를 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관심은 곧 사그라지고 맙니다. 마치 오늘의 성지가지가 내년 사순시기의 재가 되어지듯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4

모든 인간은 태중에서 시작될 때부터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다

"인간 생명은 탄생에 앞서 있는 초기 단계를 포함하여 실존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성 불가침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느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세히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아시며, 당신 손수 그들을 빚으시고 엮으셨으며, 그들이 형상조차 생기지 않은 작은 태아일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 태아들 안에서 장차 성인이 될 그들을 보십니다"〈생명의 복음 61항〉.

배아나 태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그리스도교 전승은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태중의 아기가 시작부터 하느님의 섭리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레미아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1,4-5). 하느님께서 태중의 단계를 거치는 인간 탄생의 전 과정을 섭리하셨다고 믿는다면 태중의 아기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존엄한 인간 생명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소식

성주간

'성주간' 이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룩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경축합니다. '재의 수요일' 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성목요일 저녁에 봉헌되는 '주님 만찬 미사' 직전에 끝납니다.

파스카 삼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파스카 신비를 기리는 3일간의 기간, 즉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부터 시작하여 '예수 부활 대축일' 저녁기도가 끝나는 때까지의 시기로, 전례주년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9일(목)

주님 만찬 저녁 미사는 주님께서 수난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 만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 후에 발씻김 예식을 거행하며, 영성체 후에 성체를 수난감실에 모시고 성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전까지 교우들은 계속 성체조배를 합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 4월10일(금)

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예절 중에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이날은 금식(만 18세~60세)과 금육(만 14세 이상)을 지키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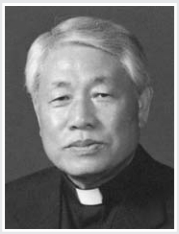
성토요일: 4월11일(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쉬시고 저승에까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묵상하며 부활의 실현을 희망하는 날입니다.

부활 성야: 4월11일(토)

파스카 삼일의 정점, 토요일 밤이 시작된 다음에 예식을 시작하고 주일 새벽 전에 마칩니다.

사제수품 50주년(금경축)을 축하드립니다



조순창(가시미로) 신부님은 1933년 충북 음성군에서 출생하여 1959년 사제수품 후 군종교구, 명동성당, 춘천교구 포천성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그 후 동성고등학교를 거쳐 일산·미아동·아현동·불광동·여의도동·청량리·청담동·방배4동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08년 6월10일에 은퇴하셨습니다.

사제수품 50주년 축하행사가 4월9일(목) 오전 10시, 성유 축성 미사 후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신부님이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4월5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로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4월12일(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 입니다.

성유 축성 미사

교구 사제단의 단일성과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가 4월9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있습니다(사제들은 장백의와 백색 영대·띠 준비).

주교회의 춘계 총회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발표

한국 천주교 주교들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 때 드러난 국민적 애도 분위기와 관련, 주교단의 소회와 다짐을 국민 앞에 밝힌 것입니다(전문은 www.cbck.or.kr '보도자료' 참조).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 발령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3월24일(화) 교구 사제 인사이동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전임지	새임지(3월19일자)
이기락 신부	안식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성직자 · 수도자 생명 연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에서는 성직자 · 수도자 생명 연수를 실시합니다. / 문의: 460-7623

· 때: 4월20일(월) 오후 5시~21일(화) 오후 1시

· 곳: 청주교구 연수원(세면도구 필기도구, 성무일도 준비)

소식

김수환 추기경 추모미사

오늘(4월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에서 정진석 추기경의 주례로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는 지향을 담아 한식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서울대교구는 김수환 추기경의 공식 추모기간을 오늘(4월5일)로 마무리하며, 이후 김수환 추기경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감사와 사랑' 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4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4월 구역(반)장 월례연수는 교구 주관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입니다. 지역 일정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므로, 본당 총구역장께 문의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중·고등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 대상: 연구간사,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된 대졸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E-mail: kycs@kycs.or.kr
- 문의: 553-7320~2(www.kycs.or.kr) / 4월18일까지 접수

서울대교구 중림동약현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방화관리자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제출서류 반환 안 됨)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사본 / 문의: 392-5018(4월19일까지 접수)

교구청 알림

노인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시니어들을 초대합니다
- 때, 곳: 4월7일(화) 오전 11시, 종로성당
- 문의: 727-2121 노인사목부

전대사를 받기 위한 1일 지방 성지순례
- 때, 곳: 4월19일(일), 전주교구 치명자산·전동성당(사당역에서 8시 출발) / 회비: 2만5천원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성가책 준비)

사목국 가정사목부(문의: 727-2070, 1)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월례특강 및 미사
- 주제: 인격장애 - 이경주 교수(가톨릭대 간호대)
- 때: 4월7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없음

제7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자, 수도자(회비: 1인 5만 원)
- 때, 곳: 4월18일-5월16일 매주(토) 오후 2시-6시(5주간), 봉천8동성당 / www.ihome.or.kr

사회교정사목위원회 39주년 창립미사
- 대상: 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때: 4월6일(월) 오전 10시2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921-5094

전 · 의경 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대상: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견진 받은 55세 이하 교우) / www.catholicpolice.or.kr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환경사목위원회 하늘땅물벗 제10기 강좌
- 내용: 생태사도직(조대현 신부), 환경일반, 먹을거리, 자연의학, 농업·농촌, 생태영성 등의 분야 총 6강좌, 농촌현장 체험, 초록피정 등
- 대상: 서울대교구 환경·우리농활동가, 생태적인 삶에 관심 있는 교우 80여 명 / 회비: 5만원(현장체험과 피정은 별도 각 1만원 부담)
- 때: 4월14일-6월2일 매주(화) 10시-12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275, 2278

향심기도(2박3일 후속심화 피정)
- 지도: 이승구 신부 / 주최: 사목국 향심기도회
- 때: 4월24일(금) 17시-26일(일) 16시(회비: 8만원)
- 곳: 상지 피정의 집 / 대상: 향심기도 회원들
- 문의: 010-8674-1105(www.hyangsim.com)

생명위원회 제3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
- 대상: 생명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
- 주제: 생명수호 생명사랑(4월30일까지 접수)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 문의: 727-2350
- 시상내역: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 발표: 5월24일(www.forlife.or.kr)
- 주최: 생명위원회, 평화방송 · 평화신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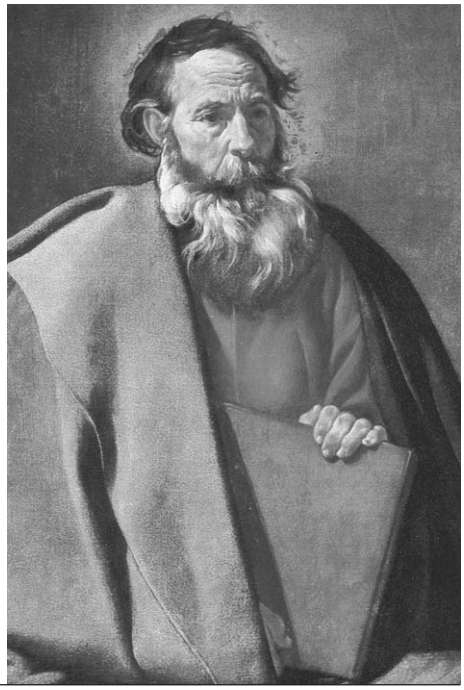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비 고
도미니코 수도회	4. 11. 17시-12. 16시	안산 수도원	010-4524-5798	성소카페: 도미니칸들의 공원(Daum)
까리따스 수녀회	4. 12. 10시-16시30분	방배동 수녀원	011-9742-2321	
예수 마리아 성심 전교 수녀회	4. 12. 14시	수녀회 본원	010-3227-9446	성소 상담 언제나 가능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4. 12. 13시30분	상도동 성심의 집	010-9330-3104	
예수수도회	4. 12.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예수의 소화 수녀회	4. 12. 14시-17시30분	수녀회 본원(광주)	010-9250-5754	성소 상담 언제나 가능
예수회	4. 18. 16시	예수회 본부	010-8728-1803	대상: 고등학생 이상
성가소비녀회(인천관구)	4. 11. 19시-12. 21시	관구 본원(부천 소사동)	011-476-5801	부활 피정 / 주제: 외쳐라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4. 11. 19시-12. 21시	관구 본원(길음동)	010-2480-5801	
살레시오 수녀회	4. 12. 14시	서울 본원(7호선 신풍역)	011-560-4658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4. 12. 14시	평신도 선교사의 집	929-4841	대상: 평신도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만25~35세 남녀
작은 예수 수도회	4. 12. 14시	수도원 본원(군자동)	011-9920-2111	
천주 섭리 수녀회	4. 12. 14시	수원 가톨릭대 옆 본원	010-3940-3635	성소 상담 언제나 가능
하비에르 사도회	4. 12. 14시	하비에르 국제학교내	019-360-5649	대상: 사도생활과 교육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한국 순교 복자 빨마 수녀회	4. 12. 14시	부산 본원	582-4997	대상: 38세 미만 / 성소 상담 언제나 가능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신자들이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오로 해' 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 서울주보에 바오로 사도의 생애, 서간, 사상, 영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십자가의 말씀과 사도 바오로

1. 일치의 근거로서의 십자가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복음 선포의 중심에 둔 이는 누구보다 사도 바오로였다. 사도 바오로는 바오로파, 아폴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코린토 교회에 십자가를 공동체 일치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누군가 유력한 이를 앞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사도는 자신을 추종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1코린 1,13)라고 차갑게 되묻는다. 사도는 세례 집전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려는 당대의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심지어 세례주는 것조차 자제하였다(1코린 1,16). 그는 세례 집전자가 아니라 복음 선포자로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되었음을 강조한다. 사도들은 저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파견되어 단지 심거나 물을 주면서(1코린 3,6),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의 협력자(1코린 3,9)이고 관리인일 뿐이다(1코린 4,1).

2. 십자가와 바오로의 인격

바오로의 편지를 읽으면 사도의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모습과 늠름한 자태가 연상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바오로의 반대자들은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2코린 10,10)고 흉을 보았다. 사실 바오로는 말이 서툴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2코린 11,6), 코린토인들에게 갔을 때 그는 약하고 떨리는 모습(1코린 2,3)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1코린 2,2). 지적인 허영심에 아부하는 잘 꾸며진 선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적인 언변과 늠름한 외관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도의 약함을 통하여 선포된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신비 체험을 하였지만(2코린 12, 2) 한편으로 가시가 줄곧 몸을 찔러대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이 고통을 멀리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계기임을 삶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2코린 12,9-10).

이처럼 바오로 서간에서 사도는 병고에 시달리고(갈라 4,13) 몸도 허약하고 근심에 짓눌리며(2코린 11,28) 말주변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교회 미술에서 사도가 늘 후광에 빛나는 늠름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온 것은 십자가로 각인된 바오로의 모습을 일반적인 성인의 이미지로 덧칠한 결과라고 하겠다.

3. 십자가와 공동체의 구성 원리

사도는 코린토 교회에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묻는다. 코린토 도시의 재정관 에라스토스(로마 16,23) 같은 이도 있었지만, 굶주린 이들이 있었고(1코린 11,21)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았다(1코린 11,30).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1코린 1,28) 구성된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철폐하는 십자가의 어리석은 복음이 작용한 결과이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코린토 교회에 지혜로운 이나, 유력한 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결과였다.

오늘날 교회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바오로의 사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표징을 구하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인들에게 어리석음(1코린 1,23)이다. 유다인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표징, 곧 기적을 요구한다(마르 8,11; 루카 11,16 참조). 표징 중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과 대조적이다. 그것은 증거를 요구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계산적인 신앙의 전형이다.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정 가능한 하느님(Deus ex machina)일 뿐이다. 표징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흥정의 신앙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신명 8,3; 마태 4,4)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으며(창세 1) 무엇보다 십자가의 말씀을 하느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1코린 1,18).

한편 지혜를 찾는 그리스인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느님께서 역사의 우연한 사건들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적인 지혜는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우주적 원리를 추구하면서 우주적 이성으로서의 신을 탐구한다. 그리스적인 지혜는 오늘날 과학을 절대시하는 이신론(理神論, deism) 내지 살아 계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으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은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지혜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계시해 주셨다(1코린 2,10). 사도는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1코린 2,16). 그리하여 바오로는 자신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갈라 2,20)께 사로잡히고(필리 3,12) 그분의 사랑에 다그침을 받아(2코린 5,14)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였고(1테살 2,8), 신자들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를 위해 기쁘게 자신의 피를 제물로 쏟고자 하였다(필리 2,17). 그리고 이 원의는 그의 험난한 사도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복음 때문에 옥살이, 매질, 태형, 돌질, 난파, 표류, 자연 재해, 강도로부터의 위험,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로 짓눌리는 삶을 살았다(2코린 11,23-29). 사도는 사람들이 욕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디어 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하면서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1코린 4,13).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지니고 사는 사도를 통해 드러났다(2코린 4,10). 사도의 외적인 인간은 이처럼 쇠퇴해가지만 그의 내적인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었다(2코린 4,16).

이처럼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허약한 외양과 눌변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사랑과 고난의 사도직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과 일치하였다. 사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삶 앞에서 우리 모두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바보 고백이야말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따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닙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한국 가톨릭 교회의 큰 별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은 향년 87세, 노환으로 선종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느님 품에 안기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 추기경의 선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존엄사를 선택했다", "인공호흡기만 떼내는 전형적인 존엄사다", "추기경의 죽음이 존엄사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김 추기경의 죽음까지도 일부 집단의 주장과 이익에 악용당하고 있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조로 김 추기경의 죽음을 왜곡하고 욕되게 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닙니다. 김 추기경은 노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순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손에 맡기면서 지상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실존적 삶의 한 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죽음을 추기경이 직접 선택하였다는 논조로 오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을 존엄사로 왜곡하여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아가 반생명문화의 표본인 안락사까지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존엄사법 입법 추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오리건 주에서는 이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존엄사법'(1997년)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고, 워싱턴 주에서는 조력 자살까지도 허용되는 '존엄사법'(2009년)이 막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엄사법 입법 움직임에도 이러한 안락사 허용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존엄사법 입법에 대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법제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면서 편안히 눈을 감는 것입니다. 곧 인간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가오는 죽음의 과정이 자연적이어야 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의 매우 큰 영역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존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연적 죽음의 순간에, 법률적 잣대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률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죽음이 크게 훼손되고,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종의 시기에,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느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치기도 하고 고쳐 주기도 한다"(신명 32,39).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

알림

모임

성경 말씀 피정(문의: 455-8836)
· 때, 곳: 4월17일(금)-19(일) 23시-14시(2박3일), 가평 작은예수회(주최) / 새성경, 미사도구, 세면도구 준비

삼성산 2박3일 무료피정
· 때, 곳: 4월17일(금) 18시30분-19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미혼 여성을 위한 주말 개인 피정
· 때, 곳: 매주(토) 오후 5시-(일) 오후 5시,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사당동 본원 · 강원도 유치리 피정의 집 / 584-6367, 033)432-6367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류형렬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4월6일(월)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14-B(구로)지구 성령 낮 기도회
· 내용: 말씀과 미사 / 문의: 011-9060-7851
· 때, 곳: 4월7일(화) 13시-16시30분, 고척동성당 소성당(주최: 14-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때: 5월1일(금)-11일(월) / 이태리, 성모님 성지순례
· 문의: 010-7131-3097 권루치아 수녀(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 지도: 강길웅 신부 / 755-3309, 011-388-5706
· 때: 4월25일-26일, 5월9일-10일, 5월16일-17일, 5월23일-24일, 5월30일-31일, 6월20일-21일

청년 주말 침묵피정 - '성 이냐시오' 식 기도방법
·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여(선착순 15명)
· 때, 곳: 4월17일(금) 15시-19일(일) 16시 2박3일, 오류동 교육관 / 010-5295-1609 예수수도회(회비: 7만원)

「통하는기도」하루 대피정(미래사목연구소)
· 강사: 차동엽 신부(계좌: 외환은행 630-005328-502 사단법인 가톨릭 문화연구소) / 031)985-2835
· 때, 곳: 3월20일(금), 4월10일(금), 5월15일(금) 13시-17시, 부천 가톨릭 교육관(전철 1호선 송내역 인근)

13-A지구 성령기도회(문의: 010-6236-4250)
· 내용: 미사와 말씀 치유(주최: 13-A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때, 곳: 매주(화) 20시-23시30분, 봉천동성당

4월7일	정윤화 신부	4월14일	한성호 신부	4월21일	이승주 신부	4월28일	한상우 신부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 · 4지구 1일 피정

4월6일(월)	10시-16시30분, 의정부 주교좌성당(중식제공)
	강사: 안호채 회장
4월8일(수)	20시-1시, 의정부 녹양동성당 / 011-1746-2120

예수마음배움터(일산 근교) 피정
· 문의: 031)946-2337, 8(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	2박3일	4월17일(금)-19일(일), 5월8일(금)-10일(일) 17시30분 시작, 17시 마침
	4박5일	4월27일(월)-5월1일(금), 5월11일(월)-15일(금) 14시 시작, 14시 마침
	8박9일	4월17일(금)-25일(토), (월22일(월)-30일(화) 14시 시작, 14시 마침
에니어그램		5월23일(토)-24일(일), 6월6일(토)-7일(일) 15시30분 시작, 17시 마침

경북 왜관 피정의 집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 지도: 최봉도 신부(고해성사 및 면담 없음)
· 때: 첫날 14시(시작), 마지막날 14시(마침)

외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89차	4월27일-29일	91차	5월22일-24일	019-613-1762
	94차	9월25일-27일	95차	10월23일-25일	054)971-0722
	96차	11월23일-25일	97차	12월18일-20일	
부산 마리아 피정센터	90차	5월8일-10일	92차	6월26일-28일	011-9503-0228
	93차	8월14일-16일			051)634-0228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일생의 치유 대피정
·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곳: 4월1일-29일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 · 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4월8일(수)	유년기 · 유아기 · 청소년기 / 문종원 신부
4월18일(수)	영적 여정과 인간조건 / 김종순 수녀(씨튼 피정의 집 원장)
4월22일(수)	성인기 · 노년기 · 치유 / 문종원 신부
4월29일(수)	감사와 찬양의 밤(교구 치유기도회 음악부)

천호성지 4월(1박2일) 피정(문의: 063-263-1004, 5)
· 주제: 성경의 맥(강사: 이병호 주교) / cheonhos.org
· 때, 곳: 4월17일(금)-18일(토), 천호성지 피정의 집

마리아 운동 다락방 모임
· 때: 4월16일 · 5월14일(목) 오후 2시-4시
· 곳: 전진상교육관 / 문의: 019-9373-2004

성소식별피정(1박2일)
·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016-9876-0418
· 때, 곳: 4월18일(토) 15시-19일(일) 17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주최) 본원 / 회비: 2만원

「성지순례」 이냐시오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 때: 5월8일(금)-21일(목) 13박14일(선착순: 20명)
· 곳: 로마, 스페인(로욜라, 아빌라 외), 프랑스(파리, 루르드) / 718-3896, 7 예수회 후원회

선교세상과 함께 하는 음악 피정
· 강사: 이준용 신부, 선교세상(단장: 고영민)
· 때, 곳: 4월6일(월) 10시30분-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011-661-5500, 874-6346 선교세상

10지구 치유 대피정(4월)
· 강사: 황창연 신부(생태마을) / 010-4749-7234 김영임(주최: 10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때, 곳: 4월6일(월) 14시-17시30분, 오금동성당

수도자와 함께 하는 성삼일 전례피정
· 때: 4월9일(목) 17시-12일(일) 13시 / 2273-6394, 5
· 곳: 왜관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주최) 서울 분원(장충동 소재) / 참석시간, 회비조절 가능

프란치스칸 기초 관상기도
· 때: 매주(일) 19시-20시30분(강사: 이재성 수사)
· 곳: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지하성당 / 010-9253-6385
· www.cafe.naver.com/BONAVENTURA(연중무휴)

2009년 2차 상설 단기 성령세미나
· 때: 4월25일(토) 13시-26일(일) 17시40분(1박3식)
· 곳: 성령봉사회관(신림동) / 계좌번호: 기업은행 074-050848-01-200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문의: 010-3123-0573 성령쇄신봉사회(회비: 5만원)

15-B(양천)지구 내적치유 피정
· 주제: 행복의 원리 / 011-787-4036 15-B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 기도회(강사: 배은하 신부)
· 때, 곳: 4월7일(화) 오후 1시-5시, 양천성당 지하 대강당(전철 2호선 양천구청역 2번 출구)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제주피정'
· 매일미사, 삼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 문의: 773-1455
· 때: 4월14일-16일, 4월19일-22일, 4월25일-27일, 5월2일-4일 / 개인, 구역반장 및 단체환영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주말 일일피정
· 주제: 잠심기도란?(강사: 정규한 신부) / 중식제공
· 때, 곳: 4월1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강의실(회비: 1만5천원)
· 문의: 717-3869(미사있음 · 개인 물컵지참)

교육

5월 ME 서울협의회 주말
· 주제: 성숙한 혼인 생활을 위해(결혼 5년 이상 부부)
· 홈페이지(www.me.or.kr) 참조 / 511-9901, 2

5월15일-17일	서울1103차(서서울83)	성베네딕도 피정의집(장충동)
5월22일-24일	서울1104차(동서울91)	예수고난회 명상의집(우이동)
5월29일-31일	서울1105차(중서울68)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한남동)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능동, 전철 5 ·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기타: 3개월 18만원	드럼	키보드(화성학)
일렉, 베이스: 24만원	3개월 18만원	초급(3개월) 18만원
월 · 수 · 목(주 1회)	월 · 수 · 목(주 1회)	중급(3개월) 24만원
수요 찬양: 매주(수) 오후 2시-5시		월 · 수 · 목(주 1회)

본당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자 월교육
· 대상: 환자를 위한 봉사를 배우고 하고싶은 교우 누구나 / 2258-2945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
· 때: 매월 넷째주(목) 14시-15시30분(회비: 5천원)
· 곳: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

절두산 순교성지 교양강좌
· 주제: 자녀의 마음과 만나는 즐거운 소통법
· 강사: 김환(서울 임상심리 연구소 소장)
· 때, 곳: 4월15일-6월17일 매주(수) 오전 11시30분(총 10회), 절두산 순교성지 교육관 / 회비: 5만원(교재포함)
· 문의: 3142-4434 절두산 순교성지 사무실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약혼자 주말
· 대상: 혼인을 준비 중인 젊은이 및 혼인 1년 전후의 신혼부부

54차	4월17일-19일, 살레시오	56차	5월29일-31일, 복자사랑
55차	5월8일-10일, 살레시오	문의: 318-2079 약혼자주말 협의회	

탈리다쿰센터 문화강좌 안내
·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생활심리 문화강좌	매주(수) 10시	742-9471,3(문의 후 접수)
행복심리 문화강좌	매주(수) 10시30분	www.taly.co.kr

작은 예수회 영어 성경 강좌
· 회비: 월 2만5천원 / 문의: 011-9942-3535
· 곳: 교육관(전철 5 · 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요한복음	매주(화) 오후 8시-10시
루카복음	매주(금) 오후 8시-10시

역삼성당 강남가톨릭문화원 강좌(문의: 553-0801)

잔혜꽃꽂이	(목) 10시30분-12시/박선희	우리춤	(수) 10시-12시/조명숙
오르간수강	(수) 개인레슨/배경희	수채화	(월) 11시-12시/김세중
성악교실	(목) 개인레슨/최석기	와인학교	(수) 20시-21시30분/이순주
이혈상담	(금) 14시-16시/이우자	교회사학당	(목) 20시-21시30분/노용필

전 · 진 · 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감수성 훈련	4월9일-5월7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참자기 찾기 훈련	4월25일(토) 10시-21시 / 26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체성 찾기, 친밀한 관계
종합심리검사	다양한 검사를 통한 성격의 객관적 이해

아퀴나스 교회음악연구소 강좌(문의: 715-3793)

성가 반주를 위한 오르간 개인 레슨		4월13일부터(12주)
합창 지휘법	4월14일부터 매주(화) 오후 7시-9시(12주)	
성악 이론과 실기	4월13일부터 매주(월) 오후 7시-9시(12주)	
	4월15일부터 매주(수) 오후 7시-9시(12주)	
	4월17일부터 매주(금) 오후 3시-5시(12주)	

메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전문적 심리치료 및 상담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고 걱정근심이 많은 학생 및 성인,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는 학생 및 직장인,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심한 가족 및 자녀양육방식 때문에 불화가 큰 부부
전문적인 종합심리 평가	지능, 주의집중, 학습능력, 기억, 성격, 정서(우울, 불안 등) 평가, 결혼만족도, 적성 및 진로평가

열린 학교 상담 아카데미
· 문의: 2279-5153, 4(www.lifeacademy.or.kr)

의사소통 에니어그램	4월8일-5월6일 매주(수) 10시, 19시
목요영성수련	4월9일-6월4일 매주(목) 10시, 19시
유식론(김재성)	4월11일(토) 10시
청소년학교(집중력캠프)	4월11일(토)-12일(일), 오늘수련장
기초 에니어그램	4월18일(토)-19일(일) 10시
오늘영성수련	4월24일(금)-26일(일), 오늘수련장
감정조절 개인상담, 의사소통훈련, 심리검사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4월9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301호 / 705-8163 CLC 사무처

4월9일-5월7일	성서와 계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등
5월14일-21일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하느님과 인간관 등
5월28일-7월9일	역사의 예수와 그리스도, 성령과 삼위일체 등
8월20일-9월17일	교회의 역사와 새로운 사명, 한국천주교회사 등
9월24일-11월12일	성사란 무엇인가, 기도와 삶 등
11월19일-29일	소공동체와 복음화, 죽음의 의미 등
강사: 김현태·송용민·홍승모·박준양 신부 / 조광·노길명 교수 외	

알림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테네브레(가상칠언) 예절
· 때, 곳: 4월11일(토) 10시, 리따영성센터(인천)
· 문의: 032)761-0768, 011-9582-0522(회비없음)

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교실
· 내용: (월) 초급반 신설 / 중급반 모집
· 곳: 가톨릭회관 512호 / 문의: 778-7543

젊은이 초급 기타교실
· 때, 곳: 매주(화) 19시30분 총8회, 까리따스 수녀회(주최) / 011-9742-2321(회비: 3만원)

평화심리상담소 상처받은 '나' 치유
· 내용: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여 소중한 '나' 를 발견함
· 때: 4월17일(금) 10시부터(8주) / 775-4831, 2

교리교사를 위한 '동화 구연' 연수
· 때: 4월15일(수)-16일(목) 오후 1시-5시
· 곳: 까리따스 수녀회 생활성서사(주최)
· 문의: 945-5982, 010-9803-3037(회비: 2만원)

성 미술 강좌 '미술 속 성모님의 모습'
· 강사: 류병창 수사 / 031)771-6134 성모기사회
· 때: 4월15일-5월13일 매주(수) 14시-16시(5주간)
· 곳: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양수리소재)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기본교육(36차)
· 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 문의: 3779-1379
· 회비: 5만5천원(우리 1002-639-060130 김효성)
· 때: 4월13일-27일 매주(월) 총 3주, 병원 4층 강당

청년성령쇄신봉사회(루하) 청년을 위한 성령세미나
· 때: 4월18일(토) 10시-19일(일) 17시(회비: 6만원)
· 곳: 성령쇄신봉사회관 3층(신림동) / 866-6345, 016-9220-7050(www.holyspirit.seoul.kr)

긍정적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다솜가족〉
· 대상: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생각과 변화를 갖고자 하는 분 / 2231-1876~8(www.shindang.or.kr)
· 때, 곳: 4월14일부터 매주(화) 10시-13시(10주 과정),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 선착순 15명(회비 없음)

선택(CHOICE)
· 주제: 관계속에서의 성장(미혼 젊은이 주말)
· 때: 179차 5월8일-10일, 180차 6월12일-14일
· 곳: 꼰벤뚜알 수도원(한남동) / 문의: 318-2079
· 주최: 가정사목부 서울선택(www.seoulchoice.or.kr)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 대상: 서울대교구 각 본당 노인대학(내용: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이해-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실태, 예방수칙) / 3472-1389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 때: 4월-12월(연중 실시) / caritas1389@hanmail.net

예수살이 공동체 11기 제자교육
· 소비사회에서 예수 제자 되기, 기도와 성사생활 틀짜기, 그리스도론, 좌선명상 등(회비: 12만원)
· 대상: 35세 이상 교우 / www.jsari.com 참조
· 때, 곳: 여성 4월23일(목)-26일(일) 남성 6월11일(목)-14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 문의: 3144-2144, 2442(팩스: 334-2144)

복음화학교 1단계 93기 개강
· 문의: 753-8765, 776-2514 새천년복음화사도회

복음화학교 1단계 93기 개강	4월14일(화) 10시, 4월17일(금) 14시
	명동 복음화학교 3층

진애인 아동 · 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상처입은 내면아이 치유와 자아회복	4월14일(4월9일 매주(화) 10시-12시50분(8주))
전문심리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 · 가족 간의 갈등 등
청소년·성인 심리검사	(성격, 정서, 인지, 지능 등) 및 음악치료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내적여정 기본 1단계	4월16일(목)-17일(금) 10시-16시	연구소교육관
내적여정 기본 2단계	4월18일(토)-19일(일) 14시-19시	
심화과정	4월23일(목)-24일(금) 10시-17시	
	4월25일(토) 10시-13시	

2009년 씨튼 연구원 종교대화 강좌 (문의: 741-2353)
· 주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영성 / 강사: 서종범, 전해주, 김종욱, 이정배, 조현철, 구미정, 최현민
· 때: 3월-12월 둘째(월) 16시-18시(회비: 9만원)

2009년 가정간호센터 봉사자 월 교육
· 때: 매월 넷째주(목) 오후 2시-3시30분
· 곳: 서울성모병원 2층 임상강의실(회비: 5천원)
· 문의: 2258-2949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팀

한빛요양보호사교육원 신규 1급 과정
· 때: 4월27일부터 매주(월-금) 9시30분-17시20분(240시간) / 약 2개월 소요(회비: 45만원-교재, 실습비 포함)
· 곳: 한빛종합사회복지관 5층(양천구 신월4동) / 2690-876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강좌
· 내용: 미들 올드를 위한 사회교육 강좌
· 4월24일(금)까지 선착순 접수(각 반 15명)
· 시니어 NIE, 컴퓨터, 댄스, 서예, 놀이, 악기연주반(우크렐레) / 홈페이지(www.isenior.or.kr) 참조
· 교육기간: 5월4일(월)-7월24일(금) / 765-8457, 8

"내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예방교육 영성강좌 제11기
· 대상: 일반인, 학부모, 교리교사, 수도자, 교육자로서의 자질향상에 관심 있는 분 / 832-8959, 010-3883-7004
· 때, 곳: 4월17일-7월10일 매주(금) 9시30분-12시30분(오전반), 18시50분-21시50분(오후반) / 총 12주간
· 곳: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주최) 살레시오 수녀원 내(전철 7호선 신풍역 4번 출구) / 전화접수 가능

모집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청소년 지도교사 모집
· 대상: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 지도사
· 홈페이지(www.kkotlove.or.kr) 참조
· 문의: 043)879-0406 연수원 교육관 사무실

서울가톨릭간병인회 남·여 간병인 양성 교육 및 모집
· 때, 곳: 4월21일(화)-23일(목) 9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508호(선착순 15명, 환불 안됨) / 928-7185
· 회비: 7만원 / 우리은행 1005-701-131505 (재)천주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자원봉사자 및 차량 봉사자 모집 / 987-6009
· 대상: 0-6세,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수급 대상자(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디딤자리(주최)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대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여성
· 이민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음
· 문의: 1-301-947-1955 수련소, 1-301-236-4009 본원

청소년국 어린이합창단 'マニ피캇' 신입단원 모집
· 대상: 초등학교 2- 6학년(가톨릭 교우)
· 연습: 매주(화·토) 오후 6시-8시, 구립 서초유스센터 / 016-249-7393(www.magnificat.or.kr)

군종교구 앗숨 청년 중창단 남자 단원 모집
· 대상: 성가대 유경험의 20-30대 남성 교우
· 내용: 헨델 메시아 공연을 위한 남자 단원 추가 모집 / 연습: 매주(토) 16시-18시, 용산 국군 중앙성당
· 문의: 010-4521-8194(www.adsum.co.kr)

성 김대건안드레아 합창단 단원 모집
· 대상: 성 음악을 사랑하고 성가에 재능있는 전공자 및 20-50대 교우 / 오디션: 매주(수) 오후 6시30분, 서초구민회관 제2연습실(자유곡 1곡)
· 문의: 010-2722-1295 단장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정규직원 모집
· 대상: 학사이상(사회복지전공,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학전공), 알코올치료기관 경력자
· 1차: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364-1811(www.sulsul.or.kr)
· 서류: 이력서, 최종학력졸업 및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 가톨릭출판사 신관 5층(당일소인만 인정)
· 접수: 4월10일(금)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가명유치원 5세반 담임교사와 행정직 모집
· 대상: 가톨릭 신자로서 유경험자
· 문의: 362-7593 중림동성당 가명유치원

미사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 때, 곳: 4월6일(월) 14시, 성모자애보육원 경당

군종후원회 사순특강 및 월례미사
· 군종신부 사순특강 · 파견미사 / 문의: 776-0457
· 때, 곳: 4월6일(월) 10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4월 월례미사
· 때, 곳: 4월6일(월) 14시(가조) · 13일(월) 14시(나조) · 20일(월) 14시(다조), 명동성당 소성당 / 775-9052

살레시오 관상 기도와 미사, 영성강좌, 연수
· 대상: 누구나(지도: 김보록 신부) / 848-9932, 010-711-9928
·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까리따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m 우측)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대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 때, 곳: 4월8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 10월까지 매월 둘째(수) 10시 미사와 피정 있음

서울대교구 다락방기도와 성모신심미사
· 미사: 오태순 신부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때, 곳: 4월18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카풀라 봉헌식 있음)

안내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공동체)
· 여성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성 바오로 노인복지센터 성 바오로의 집
· 방문요양 어르신과 양로대상 어르신들을 정성을 다하여 모심 / 3463-5701, 572-5701, 011-781-0113

강북평화의 집(재활용 공동체 '살림')
· 환경을 살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재활용 매장을 운영, 나눠 쓸 수 있는 의류 · 생활용품 기증 바람 / 문의: 987-3978

이천 베네딕도 피정집
· 개인피정, 소그룹과 쁘리시디움 피정, 가족피정
· 피정이 아닌 쉼도 가능 함(큰 그룹의 단체피정은 하루피정만 가능) / 문의: 011-306-3403

제주 관광을 원하는 교우들에게
· 제주도의 관광 및 성지를 안내하고 차량 · 호텔 · 펜션 · 예약 가능함 /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청소년의 햇살 학부모 상담 전화
· 청소년 자녀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의 고민을 들어 드림 / 744-0841(www.hatsal.or.kr)
· 시간: 매주(월~금) 10시-16시(공휴일 휴무)

쌘뽈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종로성당 혼인미사 대관 안내
· 종로본당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내고 교우 여러분의 혼인미사 예약을 기다립니다
· 예약요일: (금) 17시, (토) 13시, (일) 14시
· 문의: 765-6101(www.jongnocc.com)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팩스나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고 전화 접수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가톨릭 유아들의 노래

청소년국 유아부 | 42분 | 2CD 1만 원 | 구입문의: 727-2110

가톨릭 유아들의 노래 세 번째 음반으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유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이 노랫말을 만들고, 이용현 신부가 멜로디를 붙여 아름답고 따뜻한 가톨릭 유아들의 노래를 제작했다.

바보 별님

정채봉 지음 | 솔 | 192쪽 | 9천5백 원 | 구입문의: 332-1526

동화작가 정채봉이 쓴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로 1993년 5월~8월 소년한국일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1부는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추기경님 할아버지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야기고, 2부는 신학교 시절부터 1993년까지의 이야기이다.

살베 레지나(Salve Regina)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 노래 | 성바오로 | 56분 | CD 1만2천 원

창단 20주년을 맞는 여성 그레고리오 합창단 '안젤리카'가 영혼을 다해 성모님을 찬송한 음반으로, 성모님과 관련된 그레고리오 성가만을 담았다. 프랑스식 그레고리오 성가의 선율과 창법으로 모노포니 형식으로 노래했다.

뿌리 깊은 희망

차동엽 지음 | 위즈앤비즈 | 216쪽 |

1만2천 원 | 구입문의: 031)985-5677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현재의 불안과 위기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역경으로부터 지혜와 희망을 건지는 자세를 담았다.

그리움

생활성서 | 49분 | CD 1만 원, Tape 5천 원

가야금, 대금, 얼후 등의 전통악기와 오카리나와 플루트, 첼로, 기타와 같은 서양 악기의 선율이 어우러져 우리의 고유한 멋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했다.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 영혼에 쉼을 주는 편안한 선물이 된다.

맨발의 성인 프란치스코

손연자 지음 | 김담 그림 | 바오로딸 | 132쪽 | 9천5백 원

성인전 시리즈 다섯 번째 책으로 40여 점의 그림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 성인전의 이해를 돕도록 관련 인물과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을 담았다.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심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당신을 위한 치유의 노래

김시연 노래 | 성바오로 | 45분 | CD 1만2천 원

제2회 PBC 창작생활성가제에서 본선에 올랐던 김시연이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앨범이다. 널리 알려진 성가를 위주로 찬양하였으며, 영어 가사의 성가 4곡과 한글 가사의 성가 9곡으로 구성했다.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브뤼기에르 주교 지음 | 한국교회사연구소 | 464쪽 |

3만8천 원 | 구입문의: 756-1691

이 책은 조선교구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 선교사를 자원한 1829년부터 조선 국경지대의 변문을 향해 출발하기 이틀 전인 1835년까지 직접 쓴 여행기이다.

친구

안셀름 그륀 지음 | 이용숙 옮김 | 분도출판사 |

112쪽 | 7천5백 원 | 구입문의: 2266-3605

철학, 신학, 문학에서 우정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우정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고, 우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네가 있어 다행이야

안성기 외 지음 | 푸르메재단 엮음 | 창해 | 240쪽 |

9천8백 원 | 구입문의: 333-5678

영화배우 안성기, 정호승 시인 등 가톨릭 신자인 저명인사들과 사회의 유명인 등 30명이 세상 어디에선가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들려준다.

문록선 플루트 독주회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약 및 문의: 581-5404(www.iyoungeum.com)

문록선(데레사, 방배동성당) 플루트 독주회가 4월12일(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있다. 중앙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그녀는 1993년부터 '플루트와 현대음악', '소리, 그 움직임' 등 다양한 기획연주를 들려주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독일 출신 손트라우드 스파이델 교수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편저 | 16쪽 | 2백5십 원 | 1년 정기구독: 1만 원

비신자, 냉담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간접선교용 월간 선교지이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수필, 수녀님들의 수녀원 생활 이야기, 이색 본당 이야기, 영화로 만나는 복음이야기, 수사 신부님들의 선교일기, 신자들의 수필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교지를 부담스러워하는 비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친근감있게 다가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구입문의: 727-2032, 3